

# 전립선암, 슬픈 암이 될 것인가? 순한 암이 될 것인가?

전립선암은 슬픈 남성의 암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이며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도 낮다. 끝은 어떤가. 발기부전과 요실금이란 상처를 남겨 남성을 더욱 슬프게 한다. 암 완치율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도 전립선암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든다. 하지만 마냥 좌절할 일도 아니다. 전립선암을 '순한 암'으로 만들 것이냐 혹은 '슬픈 암'으로 놔둘 것이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 조기 발견하면 100% 완치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암센터가 조사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94.2%다. 국가암통계로 보면 86.2%다. 수치는 높아 보이지만 몇 기(stage)에 발견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4기는 50%가 채 안 된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미국은 99%다. 전립선암에 걸리면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뜻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나라는 암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글리슨(Gleason) 점수가 높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 발견하면 100% 완치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해서 무서운 암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립선암 전문가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점이다. 전립선암은 국가암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50세 이상의 15%만이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개인과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완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50세 이상 PSA 검사 비율은 75%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 등 5개 부문에서 국가암검진사업을 진행한다. 반면 남성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3개뿐이다. 전립선암을 제외한 결정은 분명한 결과를 낳았다. 2008년 전립선암은 4,913명에서 발생해, 3,157명에 머문 자궁경부암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 어떤 시기에 발견하느냐가 중요, PSA 검사로 내 상태를 알자

4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은 쉬운 상대가 아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전립선암은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늦었지만 식생활을 고치고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면 얼마든지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전립선암은 척추 등뼈나 림프절, 간 등으로 전이가 잘된다. 말기로 갈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술 후 경과관찰도 5년이 아닌 10년까지 본다.

어떤 시기에 암을 발견하느냐는 삶의 질과도 큰 관련이 있다. 늦게 발견한 암을 수술하는 의료진은 성기능이나 요실금 등 생명과 관련 없는 사안을 고려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약 70%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종 지표검사를 통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리슨 점수나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재발 후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전립선암은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암이란 점을 환자들이 꼭 숙지해야 한다.

전립선암 치료는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분야 중 하나다. 최신식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된다. 물론 로봇 수술이 생존율을 증가시켰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비용 측면을 제외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전신으로 전이됐더라도 호르몬요법이 효과를 잘 보이는 편이라, 전이암 생존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치명적 종류에 비하면 치료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한편, 전립선암은 유전적 소인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의 직계가족은 일반인보다 2.5배 위험이 높다. 이럴 경우 조기검진을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PSA 검사가 대표적인데 비용도 1만 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다.

### 전립선암 병기별 5년 생존율

(단위 %, 자료: 삼성암센터)

구분	5년 생존율
1기	107.53
2기	111.60
3기	101.00
4기	49.35

\*암환자 집단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오래 살 경우 생존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음.

### 전립선암 이것이 궁금하다

**Q 정기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다고 나왔다. 전립선암에 걸린 것인가.**

A PSA는 전립선암뿐 아니라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다. PSA 수치가 상승해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나 직장수지검사, CT, MRI 검사 등을 받는다. 조직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해도 일단 PSA 수치가 높았다면 예전보다 더 자주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